

## HOLY HABIT MOVEMENT PART 3

### 5. 정의 -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1. 구약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정의를 행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현대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을까요?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떠올려 봅시다.

- 구약성경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는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하고 보호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을 억압하거나 소외시키는 것을 큰 죄로 여기셨습니다(신 10:18, 미가 6:8).

• 오늘날 ‘고아’, ‘과부’, ‘나그네’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람들

❶ 고아 - 보호자 없는 아이들, 정서적 고립 상태의 청소년

부모를 잃은 아동뿐 아니라, 가정에서 정서적으로 방치된 아이들, 보호시설에서 자라는 청소년,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들까지 도움이 필요한 모든 다음세대가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❷ 과부 - 상실과 외로움 속에 사는 사람들

단순히 배우자를 잃은 노년층 여성뿐 아니라, 경제적·사회적으로 홀로서기 어려운 이혼 여성, 싱글맘, 혹은 고령의 독거노인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❸ 나그네 - 이방인, 이주민, 사회적 약자 및 고립된 자

외국인 노동자, 난민, 다문화 가정,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받는 이웃들(장애인, 노숙인 등)이 오늘날의 ‘나그네’일 수 있습니다.

2. 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자신만 위해 사는 삶에서 벗어나 누군가를 향해 손을 뻗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살린다면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 실천적 예시

❶ 물질적 나눔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옷이나 식품, 생활용품 등 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을 내어 노약자나 노숙인, 장애인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나 긴급구호단체에 정기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관계적 나눔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이웃을 찾아 밥 한 끼 대접하며 위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외된 친구나 동료에게 관심 갖고 다가갈 수 있으며, 관계의 중간 다리가 되어 다른 이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③ 일상에서의 실천

과소비를 줄이고 그 비용으로 나눔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SNS 등에서 구호 캠페인을 소개하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사랑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물질, 에너지, 시간이 없어서 실천할 수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닌 내가 과하게 낭비하는 것을 줄여 그것으로 하나님이 도우라 하신 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

3.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마 25:40b)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내 주변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단순히 경제적 상황만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해 봅시다.

- ‘지극히 작은 자’는, 단지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물질적 풍요로 부족함이 없지만 심령이 갈급하여 목 마른 사람, 곧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가운데 특히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들은 “관계적인 고립”으로 인해 고통 당하거나 고통 당할 수 있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 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리나 예배, 신앙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새신자들, 과거의 상처로 인해 상실과 외로움, 우울을 겪어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지체들, 예배 참석이나 교제에 제한을 받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

### ② 사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낙인이 있는 사람들, 언어나 문화적 장벽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노동의 가치가 폄하되는 사회풍토로 무시받는 사람들,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이나 장애인, 노약자들

- 내 주위에 혹시 나의 따뜻한 말 한 마디와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생각해 봅시다.

4.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예수님 대하듯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을 소외된 자들과 동일시하셨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나요?

-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셨습니다. 이 범주에는 그 누구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이들을 천대하는 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온전히 지키지 않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으나, 지극히 작은 자, 곧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종의 형태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대속적 사역이자 구속의 목적에서 낮아지신 겸손이자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외된 자들과 동일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빛과 그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닌 열매(엡 2:8-10)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자’를 섬기는 삶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은혜로 거듭난 이후, 성령의 열매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성도들과 그의 지체가 될 성도들(미래적 관점에서)을 섬길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고전 12:22-25).
-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단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정적 연민으로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것이 아니라, 성육신과 구속의 사역 안에서 자신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셨고 그 연합을 지키는 일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돕고 섬기는 일”로 규정하셨습니다.
- 참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2항 “선행은 산 믿음의 열매와 증거이므로... 성도들은 선행을 통해 자신이 은혜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강화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며, 형제들을 유익하게 하고, 복음을 증언하게 된다.” - 참된 믿음의 증거로서 정의를 행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 안에 드러나는 열매 중 하나입니다.

5. 모금, 기부, 봉사 활동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를 실천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존과 다른 생각과 시선으로 바꿔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기쁨으로 그것을 실행합시다.

### 1. '정의'란 무엇일까요? 서로의 생각을 나눠 봅시다.

- 철학적으로 정의에 대해 정의하면,
  - 1) 플라톤: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상태
  - 2) 아리스토텔레스: 동등한 사람에게는 동등하게, 불평등한 사람에게는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균형을 맞추는 것
  - 3) 현대: 공정으로서의 정의(존 롤스), 제1원칙은 기본적 자유의 평등, 제2원칙은 기회 균등과 약자 배려입니다. 종합적으로 권리, 자유, 평등, 복지 등 조화를 이루는 사회 질서이자 법 앞의 평등, 차별 없는 기회 제공 등의 개념도 포함됩니다.
- 성경적으로 정의에 대해 정의하면, '정의'(히브리어 미쉬파트, מִשְׁפָּט)는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올바름과 공의의 실현을 뜻합니다.
  - 1)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정의: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신 32:4, 시 89:14), 그분의 통치는 정의에 기초할 뿐 아니라 그의 백성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반드시 실천되어야 합니다(미 6:8).
  - 2) 구속사적 측면에서 약자 보호와 공정한 관계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것(마 22:37-40),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분의 뜻에 맞게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적으로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이 곧 정의이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 2. '공휼'이란 무엇일까요? 서로의 생각을 나눠 봅시다.

- 앞서 '정의'에 관한 질문과 이어서 '공휼'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는 이유는, 정의는 공휼이라는 동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정의를 행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공휼하게 바라보시며 죄에서 구원해주셨듯 우리도 누군가에게 정의를 행하려면 내 성품에 의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소유해야 합니다.
- 철학적으로 공휼에 대해 정의하면, “불쌍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동정심이나 자비”를 말하며 단순한 연민을 넘어 누군가의 고통에 공감하고 느끼며 그것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공휼은 인간 관계에서 따뜻함과 이해심을 표현하며 특히 소외되거나 약한 자를 돌보는 행동에서 드러나기에 '공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 성경적으로 공휼에 대해 정의하면, '공휼'(히브리어 라함 (רַחַם), 헤세드 (חֶסֶד), 헬라이어 오익티르모스 (οἰκτιρισμός), 엘레오스 (ἔλεος))은 부모가 자녀에게 느끼는 깊고 본능적인 사랑이자 언

약 관계에 따른 신실함과 자비로움을 넓게 포함한 개념입니다.

1)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정의: 미혹되어 죄로 자신의 창조질서를 깨뜨린 사람에 대한 진노가 아닌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자비로운 성품입니다(시 145:8).

2) 고통 받는 자를 향한 깊은 공감과 행동: 긍휼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고통을 본 뒤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미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눅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십자가는 궁극적인 긍휼의 표현이며, 우리는 그 긍휼을 받은 자로서 다른 이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골 3:12).

---

### 3.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에게도 좋은 일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명령하신 것은 단지 타인을 위한 도덕적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정의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미 6:8). 정의와 긍휼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살게 되며,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자 가장 인간다운 삶입니다.
- 또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성령의 열매로서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이제는 선한 일을 통해 그 은혜를 삶 속에 드러냅니다(엡 2:10). 정의와 긍휼은 단지 의무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 마지막으로 타인의 유익은 결국 공동체와 나의 유익이 됩니다. 교회나 사회 안에서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공동체의 회복과 건강을 위한 일이며 나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선순환을 일으킵니다.

---

### 4.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꼭 필요한 행동을 하나씩 정하고 실천해 봅시다.

-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성품에 합당한 삶에 대한 언약적 반응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천할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것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먼저 내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인지 기도하며 찾아보고 그 뜻대로 실천하고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